



토마스 키팅 신부의 마지막 메시지, 2018 년 10 월 12 일

미국 매사추세츠 주 스펜서 성 요셉 수도원

수도사의 휴대폰으로 녹음, 에릭 키니가 옮겨 적음, 콜로라도 주 아스펜, 2019 년 7 월 21 일

친애하는 벗들에게,

이 우주에서, 문명의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 같습니다. 과학과 영성의 위대한 발견을 통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곳에 와 있습니다.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다르고 새로운 곳이며 엄청난 기대와 가능성의 시대입니다.

이제 우리는, 거짓임을 알게 된 구시대의 계약이 아니라 침묵과 과학에 의해 입증된 진리로서 시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.

그래서 저는 모든 국가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지금이 바로 이 세계를 실현할 순간입니다. 빈곤에 대한 사랑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,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며, 가속화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말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

이제 무기 제조가 세계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,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씀드립니다. 무기 제조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얻게 될 것이며, 서로를 신뢰하고 용서하며,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과 보살핌을 베풀고,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하느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영감인 이 희망을 여러분의 마음과 손에 맡깁니다. 수 세기 동안 그 “원천”의 표현으로 인식돼 온 종교로부터 가장 진실한 역사를 시작하려는 힘이 나오는 때에, 누가 이 땅이나 혹은 저 땅을 차지하는지가 하느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? 불교, 힌두교, 수피즘, 토속 신앙과 그리스도교 등 모든 종교의 본질은 ‘일치’입니다.

아멘.

토마스 키팅